

신화적 상상력으로 펼치는 인식론적 모험

신화로의 귀환이 갖는 문학적 의의

김정란 | 시인 · 상지대 인문사회대 교수

'근대의 종말'이 확고해진 시점부터 신화가 서서히 돌아오고 있다. 대중이 존재를 근원적으로 설명해줄 담론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도 90년대 들어 '시원으로의 회귀'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글을 쓰는 일군의 작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신화적 인식을 바탕으로 래디컬한 인식론적 모험의 길을 따라가는 여성시가 주목할 만하다.



전투에서 활을 쓰는 람세스 2세

신화와 문학의 관계는 너무나 오래된 것이어서, 사실 그것을 언급한다는 일이 새삼스럽게 느껴지기도 한다. 동서고금의 유수한 문학작품들 중에서 신화를 주제로 택한 작품을 찾아내기란 너무나 쉽다. 단테의 《신곡》, 괴테의 《파우스트》, 빅토르 위고의 《사탄의 최후》, 밀턴의 《실락원》, C. 루이스의 《우리가 얼굴을 가질 때까지》 등등.

근대의 종말과 신화의 복원

또 신화를 대대적으로 수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화를 중요한 문학적 체재로 택하는 작품들도 무수히 많다. 우리나라로 무대를 옮겨봐도 마찬가지다. 김동리의 많은 작품들, 서정주의 《질마재 신화》, 이청준의 《이어도》, 박상룡의 《죽음의 한 연구》, 강은교의 《바리데기의 노래》 등 신화를 직간접적으로 차용한 작품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인화의 《인간의 길》, 김진명의 《하늘이여 땅이여》, 그리고 양귀자의 《천 년의 사랑》도 신화를 차용하지만, 이 경우는 조금 다르다. 이들이 차용하는 신화는 가짜 신화다.

80년대 말 경(얼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시점과 일치한다. 즉 정치적 의미에서 '근대의 종말'이 확고해진 시점)부터 신화는 서서히 돌아오고 있다. 그것은 지구상의 어떤 한 지역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지구적인 현상이다. 뿐만 아니라, 신화는 대대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전시대에 신화는 어떤 특정한 계층의 문화적 우월감을 치장하는 데 동원됐지만, 지금 현재 신화를 소칭하고 있는 것은 엘리트들이 아니라, 대중이다. 97년에 내가 번역했던 《람세스》가 그토록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도(일부에서는 《람세스》가 베스트셀러가 된 현상을 박정희를 복권시키려는 극우세력이 조작한 '영웅주의'와 연관시켜 이해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 책이 대중이 가진 신화에 대한 갈망을 만족시켜줬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도 90년대에 들어 운대념을 중심으로 해서 이른바 '시원으로의 회귀'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글을 쓰는 일군의 작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30년 동안 몰이해 속에 내팽개쳐져 있었던 박상룡 문학이 재조명을 받게 된 것도 신화의 귀환과 맥이 닿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에 출시된 CD 《사이렌 사이키》(위승희와 김정란의 멀티미디어 시집)도 '신화의 복원'을 메인 인컨셉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신화와 문학의 물리적인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이성의 힘을 구가하며 자연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고 승승장구하다가, 자연의 느닷없는 복수에 당황하는 지금, 왜 '구닥다리 옛날이야기'인 신화가 되돌아오고 있는가 하는 점을 이해하고, 현대적 의미에서 신화의 문학적 사용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다.

신화, 인류의 집단적 꿈

그렇다면, 신화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신화는 너무나 오래된 담론 양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 마디로 끊어서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대체로 신화를 보는 방식은 네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종족의 기원을 신성화하기 위한 이야기(건국 신화). 둘째, 자연현상에 대한 설명(번개 · 천둥 등의 현상에 대한 설명). 셋째, 인간 존재에 대한 설명(탄생 · 죽음 · 사후의 세계에 대한 설명). 넷째, 인간정신 발달의 화석(정신분석학, 특히 융의 분석 심리학이 이 관점을 채택한다). 그러나 신화는 이 네 가지 관점 중 어떤 하나가 아니라, 이 관점을 모두 뭉뚱그려 가진다. 그 중 어떤 관점 하나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는 있지만, 신화읽기는 이 모든 관점을 종합적으로 채택해야 할 때가 많다.

신화의 담론적 특성은, 그것이 걸보기에 황당무계하며, 서사적 일관성을 결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레비-스트로스가 《슬픈 열대》에서 잘 드러내 보인 것처럼, 신화는 독특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비밀관적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 신화는 마치 만화경의 이미지처럼 동일한 모티프를 중심으로 해체와 재구축을 반복한다.

존재의 근원을 설명하는 담론

이 독특한 담론적 특징은, 신화가 통시적인 주제를 즐겨 택하기 때문에 생겨난다. 즉, 신화는 인류가 지구상에서 살아오면서 풀려고 애썼던, 그러나 풀지 못한 형이상학적 주제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지었다 헐었다를 반복하는 대중적 형이상학의 집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신화란 통시적 주제를 공식적 축 위에서 끊임없이 변주하는 독특한 담론체계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이 걸보기에 혼란스러워 보이는 이유는, 그 담론체계가 어떤 한 사람의 욕망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욕망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신화는 수천 년 동안, 인류가 함께 꾸어 왔던 집단적 꿈이다.

그렇다면, 신화는 왜 돌아오는 것일까? 그것은, 인류의 근대 기획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사실과 맞물린다. 인류는 신을 죽여 버리고 이성에 기대어 발달시킨 물질문명으로 행복해지지 않았다. 게다가, 존재를 설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발달했던 철학이 지나치게 해석학적으로 정교해짐으로써, 운명이라는 보편적 문제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데 실패했고, 종교는 종교대로 도그마의 세력다툼에 매달리거나, 교세 확장에만 급급한 형편이고, 계속해서 세속화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대중의 존재에 대한 근원적 불안을 치유하는 데 실패했다.

신화의 귀환은 이런 맥락 위에 실했다. 즉, 대중은 존재를 근원적으로 설명해줄 담론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이 관점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아젠다로 떠오를 것이다. 대중은 순수한 철학적 방식으로는 존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살가운 이야기 형식으로 설명해 주기를 바란다. 마치 어린 시절에 우리가 할머니 무릎을 베고 누워서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삶의 문제들에 눈떴듯이. 문화정책 입안자들은 이 관점을 진지하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문학과 관련하여 신화의 귀환은 예전의 문학이 그랬던 것처럼 주제의

차원에서 논의되지는 않는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문학이 신화적 인식을 수용하는 방식이다. 왜냐하면, 문학의 현대적 의미는, 그것이 무엇을 다루느냐는 문제보다는, 그것이 무엇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문제에서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요컨대, 현대적 의미의 문학이란, 인식의 모범적인 형태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인식론적 모험으로서의 여성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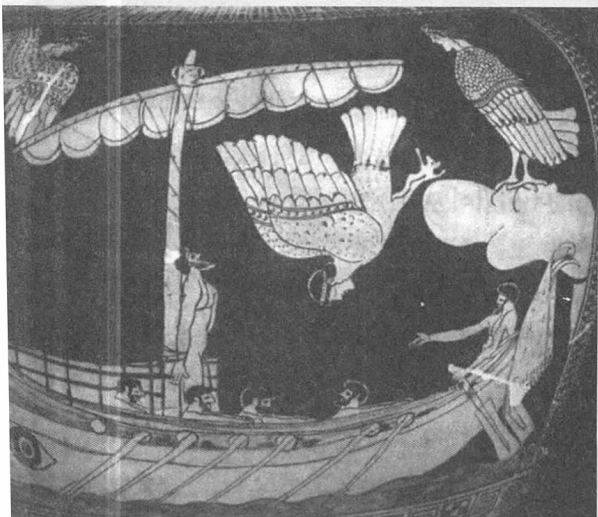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생산되는 한국 문학 중에서 가장 전위적인 인식을 선취하고 있는 분야는 '여성시'인데, 여성시야말로 신화적 인식을 바탕으로 21세기 패러다임을 예시하는 래디컬한 인식론적 모험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 그 중에서도 노혜경이라는 시인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그녀는 최근에 발간된 《뜯어먹기 좋은 빵》(세계사)이라는 탁월한 시집을 통해서 문학이 어떻게 신화적 인식을 수용하는가를 모범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연작 형식으로 쓰여진 《레이스마를 이야기》는 비평가의 입장에서 정말 '뜯어먹기 좋은' 여러 가지 철학적 주제를 컬트적인 방식으로 형상화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소설가들이 대중성에 함몰돼 감성적인センチ멘탈리즘이나 불륜의 주제에 매달리는 동안, 한국문학의 수준을 성큼 올려놓는데 기여하고 있다. 《뜯어먹기 좋은 빵》에서 귀여운 소품 한 가지를 소개하겠다.

“꿈속에서 수빈이가 종이를 한 장 들고 왔다/읽어보라며 주었다/이렇게 써어 있었다//똥새네 집//똥누고 와보니/새들이 더럽다고 떠내고 있었다/새 한 마리는 그냥 있었다/년 왜 안 가니/하고 물었더니/나는 똥새거든/하고 대답했다//우리는 안 더러운/똥새 식구들이다//네가 쓴 시니?/하고 물었더니/그렇지? 시가 맞지?/하고 환하게 되물었다//꿈을 깨고 나니/내 꿈은 분명 맞는데/시를 쓴 것은 나인가, 내 딸인가?(<똥새네 집>)

‘똥’은 근대가 가장 억압했던 것 중의 하나다. 근대는 병원을 세워 죽음을 몰아냈고, 화장실을 만들어서 똥을 쫓아냈다(최근에 똥이 만화 캐릭터들과 함께 잘 등장하는 이유는 — 예컨대, 《딸기》, 《광수생각》 — 탈근대사회가 근대를 극복하면서 분변학적 상상력을 요청한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노혜경은 매우 건강한 분변학적 상상력의 소유자다). 똥은 이 시인이 신화의 이름으로 복원하고자 하는 근대의 타자들 가운데 하나다. 시인은 흥미롭게도 근대가 가장 추잡하다고 여겼던 것에 천사의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

탈근대적 포괄의 천사. 일종의 ‘메타시’ 형식으로 씌어진 이 작품은 신화적 인식을 모범적인 방식으로 보여준다. 꿈과 현실 사이의 통로는 기묘한 방식으로 열려 있으며, 신화적 인식의 가장 커다란 특징인 존재론적 침투현상이 잘 묘사돼 있다. 내가 딸인가, 딸이 나인가, 꿈이 현실인가, 현실이 꿈인가, 시가 존재인가, 존재가 시인가? 신화 안에서 우리는 홀로 있지 않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꿈꿨고, 좌절했고, 그리고 다시 희망을 찾아 일어섰던 무수한 죽은 자들, 살아 있는 자들,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들과 함께 있다. 신화적 인간은 ‘홀로/함께’ 있다. 신화적 인간에게 고독은 추문이다.●



물의 요정 세이렌과 그녀의 목소리에 저항하기 위해 돛대에 몸을 묶은 오디세우스.